

<배비장전> 신고찰

육재용*

- I. <배비장전> 이해의 새로운 시각
- II. <배비장전>에 드러난 관광적 요소
- III. 통과례로 본 <배비장전>의 의미
- IV. 맺음말

【요 약】

본 논문에서는 학제간 연구 혹은 間學問的 접근방식으로 <배비장전>을 고찰하였다. <배비장전>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에다 관광학의 특징이론을 빌려 작품 해석을 심화했다. <배비장전>은 작품의 서두부터 관광적 특성이 드러난다. 이러한 관광적 요소는 배비장의 제주 방문의 동기로 작용하였고, 서사가 진행됨에 따라 배비장이 애랑의 자태를 탐하고자 하는 욕구의 시발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기존 논자들의 상당수가 배비장을 풍자의 대상으로 거론하였지만, 본고에서는 배비장을 비장 업무와 제주 관광을 통한 통과례의 주체로 보고 작품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하였다. 곧 배비장이 제주로 출발하는 순간부터 정의현감에 임명되기 전까지의 전 과정

* 김포대학 교수

을 배비장의 의식 각성의 계기가 된 통과의례로 보았다. 통과의례는 분리의례·전이의례·통합의례로 가를 수 있는데, 배비장은 제주로 향하면서 이 세 차례의 의례를 모두 겪는다.

관광이란 일상생활로부터의 탈출인 동시에, 일상의 문턱을 벗어나 閼置性(liminoid)의 범위로 들어갔다가 다시 일상의 영역으로 돌아오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치성의 세계에서는 관광객은 좀더 과격해지고 무절제한 행동, 일탈적인 성적 방종을 일삼기도 한다. 육지와 멀리 떨어진 제주에 부임한 배비장은 관광객의 입장이 되어 閼置的(liminal) 상황에 빠지고, 이전 생활과는 다른 전도감을 맛보며, 이에 평소와는 달리 애랑의 육체를 탐하는 행동을 보인 것이다.

I. <배비장전> 이해의 새로운 시각

<배비장전>의 줄거리는 배비장이 제주목사 김경의 예방 소임을 맡은 후 정의현감에 임명되기 전까지의 한 달 남짓한 기간에 경험한 사건들¹⁾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평소 풍류를 좋아하던 배비장이 친한 관계에 있던 목사의 추천으로 비장 직책을 맡아 업무 겸 관광차 제주에 내려오면서부터 몇 차례의 새로운 경험과 그에 따른 각성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목사의 도움으로 정의현감에 임명되어 선정을 베풀고 나아가 부귀와 공명을 누린다는 내용이다. 정의현감은 제주 동남부에 위치한 旌義縣의 수령이다. 배비장은

1) 이러한 사건들의 대부분은 비장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때 일어난 것이 아닌, 여가 시간에 발생했거나 비장직을 중도에 그만두고 경험한 것들이다. 여가는 ‘일’이 배제된 ‘자유 시간’을 뜻하는데, 여기서 자유라는 의미는 노동 시간의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의무로부터 해방되어 아무런 구속 없이 있는 상태를 내포하고 있다(오순환·김대우, 『한국의 여가문화』, 일신사, 2004, 11~12쪽).

관광적 성격을 띤 통과의를 겪은 후 濟州牧의 비장에서 정의현의 원님으로 신분이 바뀐 것이다.

<배비장전>에 관한 기존 논의 검토는 이은봉에 의해 한 차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는 <배비장전>에 관한 연구를 ‘이본에 관한 고찰, 근원설화에 관한 연구, 풍자문학으로서의 연구, 다른 소설과의 비교 연구’라는 4항목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핀 뒤,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진 연구의 대부분은 이 작품의 적층과정에서 나타난 근원설화 연구와 주제와 관련된 풍자성 연구에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연구의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 실정이다. 다만 근원설화와 관련된 신화적 접근이나, 주제와 관련된 서민 예술적 접근 등 새로운 시도는 있어 왔지만 그 결론에 있어서는 대부분 선행 연구자들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어 연구의 한계성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배비장전> 연구는 오랜 세월을 걸쳐 비판종합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유의 주제의식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 논의의 벽을 허물기란 매우 힘들 것이다.²⁾

본고에서는 기존 논의의 성과를 충분히 수용하면서도,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점을 달리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배비장전>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작품에 드러난 관광적 요소³⁾에 초점을 맞춘 학제간 연구 혹은 間學問的 접근방식(inter-disciplinary approach)이다. 요즈음은 학문의 방향이 더 이상의 분화를 멈추고 통합·융합·통섭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에 부응하여 <배비장전>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에다 관광학의 특정이론을 빌려 작품 분석과 해석을 더 심화하고자 한다. 이는

2) 이은봉, 「<배비장전> 연구사」, 『고소설 연구사』(일위 우쾌제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2002, 845쪽.

3) <배비장전>은 작품의 처음부터 중반부로 갈수록 ‘관광적 요소’가 서사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제Ⅱ·Ⅲ장에서 상론하고자 한다.

국문학과 관광학의 융합 연구의 일종이며, 국문학을 母學問으로 한 국문학의 경계를 넘어서는 연구이기도 하다.

최근 학계에서는 국어국문학과가 그 정체성을 지키면서 생존할 수 있는 방식의 하나로 문화콘텐츠나 문화관광과의 결합을 제기한 바 있고,⁴⁾ 그러한 경향에 발맞춘 연구의 한 사례를 보여주기도 했다.⁵⁾ 본고의 성격도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가령 국문학과와 관광학을 합쳐 ‘문화관광과’를 만들 경우,⁶⁾ 거기에 속한 교수들도 연구의 방향을 정함에 있어 국문학과 관광학의 두 영역을 통괄하는 間學問的 접근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자들의 상당수가 배비장을 풍자의 대상으로 거론하였는바,⁷⁾ 이러한 관점도 일정 부분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논의의 방향을 달리하여, 배비장을 비장 업무와 제주 관광을 통한 통과례의 주체로 보고 작품 해석을 새롭게 하고자

4) 권순궁, 「지방대학 ‘국어국문학과’의 개편과 전망」, 『고전문학연구』 제25집, 한국고전문학회, 2004, 47쪽. 최한선, 「광주·전남지역 국어국문학과 및 문예창작과 현황과 실상」, 『고전문학연구』 제25집, 한국고전문학회, 2004, 86~87쪽. 여기서 권순궁은 국문학의 지식이 문화산업의 콘텐츠가 될 수 있고, 테마관광 같은 관광산업과의 연결도 가능하다고 했다.

5) 이종목, 「지방화 시대 한문학 연구의 시각과 방향」, 『한민족어문학』, 제45집, 2004, 39~56쪽.

6) 최한선, 위의 논평, 86쪽. 최한선은 위의 글에서 “예컨대 관광학과 국문학과를 합쳐 ‘문화관광과’ 등을 만들 경우, 기존의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놀이 위주의 관광을 지양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일고 있는 우리 문화유적을 답사하고 탐방하려는 관광 행태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7) 대표적인 논의가 ‘<배비장전>의 풍자충위와 역사적 성격’을 검토한 권순궁의 연구이다. “제주 목사와 애랑을 축으로 한 풍자에서는 동질 집단 내에서의 경직성이, 방자와 애랑을 축으로 한 데서는 양반의 위선이, 사공과 해녀 등 민중들이 가하는 집단적 풍자에서는 양반의 권위가 각각 표적이 됐음을 보았다(권순궁, 『고전소설의 풍자와 미학』, 박이정, 2005, 114쪽 참조).”

한다. 곧 배비장이 제주로 출발하는 순간부터 정의현감에 임명되기 전까지의 전 과정을 배비장의 의식 각성의 계기가 된 통과의례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⁸⁾ 최근 관광학 연구자들은, 관광이 위락적이지만 의례행위일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통과의례로서의 관광론을 제기하기도 했다.⁹⁾ 논의의 구체적 전개를 위해 먼저 작품에 드러난 관광적 요소를 살펴보고, 비장 직책을 맡아 업무 겸 관광차 제주에 도입한 작중인물의 통과의례를 중심으로 <배비장전>을 고찰하여, 작품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하고자 한다.

본고는 <배비장전> 이본의 특성상 김삼불 교주본과 구활자본 모두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¹⁰⁾ 서사의 클라이맥스까지는 김삼불 교주본을 주 텍스트로 삼되 부분적으로 구활자본을 보충 자료로 활용하였다. 김삼불 교주본에서 교주자가 임의로 제외한 蘂本 60장 이후의 줄거리는 구활자본을 전적으로 참고하였다.

8) 관인사회에서 행해졌던 新參禮를 중심으로 <배비장전>을 연구한 적도 있으나(권두환, 「<배비장전> 연구」, 『한국학보』 제17집, 일지사, 1979, 107~125쪽), 위의 논의는 통과의례의 세 단계 중 전이의례(transition rites)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본고에서는 전이의례뿐 아니라 그 전후에 행해진 분리의례(rites of separation)와 통합의례(rites of incorporation)까지 모두 거론하면서 작품을 해석하고자 한다. 이에 관해서는 제III장에서 상론한다.

9) Nelson H. H. Graburn, 'Secular Ritual : A General Theory of Tourism', Valene L. Smith & Maryann Brent(Co-Edited), "Hosts and Guests Revisited : Tourism Issues of the 21st Century", New York, Cognizant Communication Corporation, 2001, pp.42~50. 김사현, 『국제관광론 -국제관광 현상의 사회문화론적 해석-』, 백산출판사, 2006, 103~105쪽 참조.

10) 김삼불 교주본은 1974년 신구문화사에서 정병욱을 교주자로 하여 <배비장전-웅고집전>(신구문고 4)으로 재발간하였다. 구활자본은 1916년 4월 新舊書林에서 발행한 것으로, 著作兼發行者는 池松旭이며 표제가 <新訂 繡像 裴裨將傳(신정슈상 비비장전)>으로 적혀 있다. 김삼불 교주본이 구활자본에 비해 판소리사설의 흔적을 더 많이 지니고 있으나, 교주자의 판단으로 전체 75장의 蘂本을 59장까지만 수록하고 60장 이후는 임의로 제외하였다.

II. <배비장전>에 드러난 관광적 요소

<배비장전>은 본문 곳곳에서 관광적 요소¹¹⁾를 찾을 수 있다. 작품의 서두에서부터 관광적 성격이 드러나는데, 이러한 관광적 특성은 서사의 흐름에 주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배비장전>을 논한 기존 연구자들이 간과한 사항이다.

호남 좌도 제주군 한라산은 옛적 耽羅國 주산이요 남방도 중 제일 명산이라. 험준하고 수려한 정기가 어리어서 기생 애랑이가 생겨났나 보더라.(8쪽)¹²⁾

침소로 돌아와서 주소(晝宵) 생각이 그 여인을 못 잊어 신음상사 하는 말이, 한라산 맑은 정기를 제가 모두 타고나서 그리 고이 생겼는 고 못 잊어서 한이로다.(64쪽)

앞의 인용문은 작품의 서두에 나오는 구절이다. ‘남방도 중 제일 명산’이란 말에서 한라산이 기회만 되면 누구나 한번 가고 싶어 하는 관광지 조건, 관광적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耽羅國의 ‘耽羅’는 클라이맥스 부분의 ‘耽色亡身 죽게 되니’¹³⁾의 ‘耽色’과 묘한 대비를 이룬다. 耽色亡身은 배비장이 제주도에 업무

11) 일반적으로 관광이란 공간이동적, 자발적, 즐거움, 일시적, 비영리적, 불규칙적, 탈일상적, 자기계발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인간의 이동 현상이며, 여행 중개인은 물론 현지 주민이나 지역사회와의 사회문화적 접촉을 수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김사현, 앞의 책, 31~32쪽 참조). 이는 관광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인데, 개개의 관광 행위가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가령 가상관광의 경우는 공간이동이라는 요소가 제외된다. 배비장처럼 관원이 공무를 띠고 지방으로 가서 관광하는 경우 그 동기가 반드시 자발적인 것만은 아니다(각주 17번 참조). 또한 관광을 통한 자기계발의 정도도 개인마다 차이가 난다.

12) 정병욱 교주, <배비장전·옹고집전>(신구문고 4), 신구문화사, 1974, 8쪽. 밑줄 필자. 앞으로 이 책을 인용할 경우 인용 쪽수만을 붙임. 한글과漢字가 병기된 어구는 필요에 따라 한자만을 기록함. 이하 마찬가지임.

13) “이름 없고 남모르게 耽色亡身 죽게 되니 내 아니 잡놈인가?”(88~89쪽)

겸 관광차 내려왔다가 여색에 빠져 망신을 당한다는 것으로, 애초의 제주 방문 동기와는 달리 자연 관광 대신 여색을耽溺한 결과이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론한다. 애랑이 한라산의 정기를 타고났다는 구절은 본문에서 자주 되풀이된다. 제주 도임 후 배비장에게는 자연관광자원¹⁴⁾인 한라산뿐 아니라, 그 정기를 타고난 고운 애랑 또한 새로운 탐색 대상으로 떠오른다.

배비장이 집으로 돌아와서 대부인께 여쭙오되, 「소자가 팔도강산 좋은 景을 역력히 보았오되 제주가 島中이라 侍下에 못 갔삽더니, 친한 양반이 제주 목사를 하여 비장으로 가자 하니 다녀 오겠삽나이다.」 (9~10쪽)

(비) 소즈가 팔도강산 명구승디를 낫々히 보앗스되 제주는 도중이라 시하에 離側기 어려워서 지우금 못갓더니 다형이 친흔 량반 제주목스 제슈되야 도임 길 썩나면서 비장으로 가즈흐니 한번 다녀 오올 이다(신 2쪽)¹⁵⁾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제주가 뛰어난 경관을 지녔다는 사실 외에도, 배비장의 제주 부임 동기와 제주목사 김경과 배비장과의 관계¹⁶⁾를 짐작할 수 있다. 평소에 관광과 풍류를 좋아하던 배비장이 기회가 되면 내심 제주도를 한번 방문하고 싶어 했고, 김경과 배

14) 관광자원은 자연관광자원, 문화관광자원, 사회관광자원, 산업관광자원, 위락관광자원 등으로 분류되는데(신우성, 『관광자원의 이해』, 기문사, 2004, 28~34쪽 참조), <배비장전>의 본문에서 자주 언급되는 제주의 경관·풍광은 자연관광자원에 속한다.

15) <新訂繡像 裴裨將傳(신명슈상 비비장전)>, 新舊書林, 1916, 2쪽. 밑줄 필자. 앞으로 신구서립본을 인용할 경우 인용 쪽수 앞에 ‘신’ 자를 붙임. 한글과 漢字가 병기된 어구는 필요에 따라 한자만을 기록함. 이하 마찬가지임.

16) 문면에 나타난 김경과 배비장과의 관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서사의 진행 과정에서 차차 드러나겠지만 김경은 배비장을 비장으로 발탁한 후 그의 경직성을 교정해 준 교정자인 동시에 결말부에서 배비장이 정의현감에 임명되도록 도와준 보호자·후원자였다.

비장은 이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 팔도강산 좋은 경치를 두루 보아 온 풍류남아 배비장이 비장 소임을 맡은 데에는 제주의 좋은 풍광을 이번에 가서 한번 보고자 하는 관광적 욕구가 일부 개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비장은 목사 김경의 제의를 수용한 것이다. 비록 친한 사람을 따라 비장 업무를 보기 위해 제주에 내려가지만, 거기에는 업무 도중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제주의 절경을 감상하고자 하는 관광적 동기가 내재되어 있었다.

三公不換此江山을 금일이야 알리로다. 어언간 제주성을 다다르니, 地勢도 좋거니와 풍경이야 더욱 좋다. 喚風亭 배를 내려 화북진 좌기하고 사면을 둘러보니 제주가 十八景이라. 망월루 살펴보니 어떤 청춘남자 소년 여자 서로 잡고 戀戀離別 낙루한다.(19~20쪽)

배비장 일행이 제주에 도착한 후의 첫인상을 서술자의 눈으로 그리고 있는 대목이다. 삼공불환차강산(삼정승의 벼슬자리와도 바꾸지 않을 경치 좋은 이 강산)이란 구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제주의 뛰어난 지세와 산천의 풍경을 강조하고 있다. 제주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관광자원의 보고이다. 실로 목사와 비장 일행은 제주에 관리로서 업무를 보러 왔지만 내심 이 뛰어난 자연 경관을 유람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배비장을 관광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도 작품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¹⁷⁾

17) 조선시대 지방에 파견된 관리들의 행적이나 사행길에 나선 사신들의 기록, 낯선 곳을 여행한 후 그 내력과 감흥을 적은 기행문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관광적 요소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 옛사람들의 관광 동기와 계기에 관해서는 조동일의 다음 논의가 참고 된다. “예전에는 여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 않았다. 관원이 공무를 띠고 지방으로 가거나, 오랫동안 머르다가 유람여행을 떠나거나 하면 모처럼의 소중한 경험을 글로 써서 알리는 데 힘썼다. 죄를 지어 귀양 갈 때면 바라지 않는 데도 강요된 여행을 해야만 했다(조동일, 『민중영웅 이야기』, 문예출판사, 1992,

정비장의 거동 보소. 애랑의 손을 잡고 이른 말이, 「잘 있거라. 네 들어라. 경성 태생 소년으로 제주 物色 종단 말을 굳이 듣고 이곳 와선 芳春緣分 닐로 하여 세월을 보낼 적에 연연한 네 태도와 청아한 네 노래에 고향 생각 없었더니……」(20쪽)

망월루에서 벌어진 정비장과 애랑의 이별 장면 첫 대목이다. 여기서 정비장의 제주 부임 동기를 엿볼 수 있는데, 정비장은 스스로 제주 물색이 좋다는 말을 듣고 이곳에 왔다고 했다. 물색의 사전적 의미는 ‘물건의 빛깔’ 혹은 ‘자연의 경치’이다. 김삼불 교주본의 교주자는 物色을 ‘경치’로 풀이하거나(20쪽 주), 物色之地를 ‘좋은 물건과 미녀들이 많은 곳’(44쪽 주)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비장 역시 제주의 아름다운 경치와 미녀를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비장 신분으로 도임하였다가 애랑을 만났다. 업무 겸 관광차 제주에 와서 자연 경관 탐방 외에 미녀와도 인연을 맺었다. 한라산뿐 아니라 한라산 정기를 타고난 애랑에게 혹하고 만 것이다.

제주의 물색이 좋다는 말을 듣고 부임한 정비장이 그동안 제주의 명승지를 얼마나 유람하고 감명을 받았는지는 문면에 드러나 있지 않다. 다만 아리따운 여인의 才色도 하나의 物色이라면, 정비장은 제주에 와서 비장 업무를 본 것 외에도 재색관광을 하고 돌아가는 셈이 된다. 제주에 도임하여 현지 미녀와 정분을 쌓은 뒤 다시 원래의 거주지로 귀환하는 것이다.¹⁸⁾ 정비장은 그동안 준비한 물건들이 든 배짐을 풀어주고 갓두루마기, 돈피 휘양, 철병도, 상하 의복, 고의적삼까지 빼앗겨 알비장이 된 뒤, 앞니까지 빼어주고 애랑과 작별한다. 결국 업무 겸 관광차 제주에 와서 그동안 일

296쪽).” 여기서 배비장의 제주 관광은 ‘관원이 공무를 띠고 지방으로 가서’ 체험한 경우에 해당된다.

18) “정비장 감지덕지 무슈 스레흐 연후에 겨우 藏身호고 보니 제주 삼 년에 所存者가 이것이라 허썩 탄식호고”(신 26쪽) 위의 구절에 드러난 바와 같이, 정비장은 제주에 와 3년간 봉직하다가 돌아감을 알 수 있다.

하면서 모은 좋은 물건들과 입었던 의복까지 모두 현지인에게 빼앗기고 가는 것이다.

이러한 장면을 본 배비장이 정비장의 행위를 비양하고, 자신은 여색에 초연하겠노라고 자신 있게 말하자, 방자는 배비장에게 정말 그럴 수 있겠느냐며 내기를 건다. 내기의 결과야 배비장의 패배로 드러나지만, 여기서는 외래 관광객(guests)과 관광지 거주자(hosts) 간의 대결 양상이 끝내 관광지 거주자의 승리로 끝나는 점을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정비장과 애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지 토착민의 생활 적응력이 강인함을 보여준다.

내 본디 경성에 싱장ᄃᆡ야 八道江山名區勝地 아니 본 곳 업건마는
제주갓치 조흔 강산 보든 바 처음이요 酒肆靑樓 곳ᄃᆡ마다 美色도 마
니 보앗건만 저기 보이는 저 녀즈 갓흔 色態는 三生에 初見이라 저를
괴위 본 연후에 웃지 춤아 空行하리(신 40~41쪽)

위의 구절은 한라산으로 花遊갔던 배비장이 수포동 녹림간에서 목욕하는 애랑의 교태를 보고 자탄하는 대목이다. 배비장이 제주의 경관에 이어 한라산의 정기를 받은 애랑의 자태에 마침내 반한 것이다. 위의 ‘어찌 차마 空行하리’란 구절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대상을 접한 후, 헛걸음하지 않고 꼭 가 봐야만 하는 배비장의 관광 욕구, 혹은 耽美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팔도강산 名區勝地’에서 ‘제주의 좋은 강산’을 보고 경험하였듯이, ‘주사청루 美色’보다 더 나은 ‘애랑의 色態’를 직접 탐하고자 하는 배비장의 욕망이 잘 드러난다.

이처럼 <배비장전>에 나타난 관광적 요소는 작품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서사 전체에 걸쳐 두루 살펴볼 수 있다. 다음 장에서 ‘통과의례로 본 <배비장전>의 의미’를 고찰하는 가운데서도 관광적 특성은 수시로 드러난다. 배비장의 탐색 대상이 제주 자연 경관에서 애랑의 육체로 변화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관광

적 요소는 배비장의 제주 방문의 동기로 작용하였으며 서사가 진행됨에 따라 애랑의 아리따운 자태를 탐하고자 하는 욕구의 시발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III. 통과례로 본 <배비장전>의 의미

일반적으로 通過儀禮는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상황·지위·신분·연령 등을 거치면서 치르는 갖가지 의례나 의식을 총칭하는 말이다. 통과례는 분리의례, 전이의례, 통합의례로 가를 수 있는데,¹⁹⁾ 배비장은 제주에 오면서부터 이 세 차례의 의례를 모두 치른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권두환은 관인사회에서 행해졌던 新參禮와 관련하여 <배비장전>의 의미를 밝힌 바 있으나,²⁰⁾ 작품 전체의 흐름을 고려할 때 이것만이 배비장의 통과례를 설명한다고는 볼 수 없다. 곧 권두환의 논의는 통과례의 세 단계 중 전이의례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 전후에 행해진 분리의례와 통합의례는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작품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려면 신참례(전이의례)뿐 아니라, 배비장이 제주 到任 과정부터 정의현감에 임명되기 전까지 경험하는 3단계에 걸친 통과례를 모두 거론해야 한다.

먼저 배비장은 제주 부임 도중 목사와 여러 비장들과 함께 船上

19) 반젠넵은 통과례(the rites of passage)를 분리의례(rites of separation), 전이의례(transition rites), 통합의례(rites of incorporation)라는 세 가지 하위 범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A. 반젠넵 저, 전경수 역,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1985, 40쪽).

20)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배비장전>은 新參禮에 의해 예기되는 관원들의 비리와 야합상을 소재로 하여 관인사회 일반을 풍자한 작품이며, 신참례가 지닌 威嚇과 오락의 기능에 힘입어 날카로운 웃음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게 되었다(권두환, 「<배비장전> 연구」, 『한국학보』 제17집, 일지사, 1979, 124쪽).”

에서 집단으로 풍랑을 경험하는 분리의례를 치른다. 이어 九代貞男임을 자처하던 배비장이 耽色으로 인한 흑독한 봉변을 당하는 전이의례를 겪는다. 마지막으로 작품의 후반부에서 배비장은 해녀·사공과 대면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망신을 당하고, 애랑과 다시 한 달간을 보낸 뒤 목사의 도움으로 정의현감에 임명되는 통합의례를 치른다. 이러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배비장은 직·간접적으로 의식의 각성과 정신적 성숙을 경험한다.²¹⁾

기존 논의에서 언급한 신참례만으로 볼 경우, 배비장은 신참례에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한 인물이다. 신참례를 통과하고 제대로 적응했다면 배비장은 계속해서 비장 업무에 충실했어야 했다. 하지만 배비장은 목사의 기획과 애랑과 방자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耽色亡身이라는 흑독한 봉변을 당하고, 수치심에 못 이겨 비장직을 그만두고 제주 관아를 스스로 떠나게 된다.²²⁾ 따라서 작품 전체의 스토리를 염두에 둘 때, 이 한 차례의 신참례로만 <배비장전>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배비장이 3단계에 걸쳐 경험한 통과의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1. 분리의례

21) 모르데카이 마르쿠스는 成熟, 覺醒, 自我發見이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니시에이션을 잠정적인 것(tentative), 미완적인 것(uncompleted), 결정적인 것(decisive)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서 고찰한 바 있다. Mordecai Marcus, 「<이니시에이션> 소설이란 무엇인가?」, 『현대소설의 이론』(김병욱 편, 최상규 역), 대방출판사, 1984, 464쪽.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84, 471쪽 참조.

22) “즉시 목스게 흐직하고 여러 동임 작별 후에 한양으로 회정하는 거동 무료하기 짝이 없고 초々하기 괴지업다 옛그제 괴구잇던 전비비장 덕단전 북 오날날 썩셔러져 弊袍破笠 가련하고 銀鞍白馬 일변하야 芒鞋竹杖 처량하다”(신 92쪽) 이어 서술자는 배비장이 正直하지 못해 과만을 채우지 못했다고 하며, 한 번 실수에 自愧之心을 이기지 못하여 單獨一身으로 제주를 떠나는 배비장의 처량한 신세를 강조하고 있다(신 93쪽).

배비장이 겪는 분리의례는 목사 및 타 비장들과 함께 渡海 도중 船上에서 집단으로 경험하는 의례이다. 이들은 서울을 떠나면서부터 그동안 생활했던 일상과 실제로 떨어진 셈이지만, 해남까지의 여정은 육로를 통한 것이라 바다를 건너는 것과는 체감의 강도가 달랐다. 따라서 목사 일행은 거의가 생애 처음으로 망망대해를 건너면서 가족친지와 격리를 본격적으로 실감하는데, 처음에는 해남에서 배를 타고 제주로 향하면서 다음과 같이 유람 가는 분위기에 빠진다.

사또 등선한 연후.....上船에 고사하고 上船砲 놓은 후에 先往島에 待風하여 大海茫茫千里波에 배 띄워라 배 띄워라. 早潮纔落晚潮來라.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하니, 倚船漁父一肩高라. 도사공은 키를 들고 역군은 아디 틀어 바람 맞추어 배 시길 제, 망망대해 떠가는 저 배로다. 浩浩滄浪蘆花月에 范蠡船이 떠가는 듯 두둥실 떠나갈 제, 사또 일희일비하여, 「술 들어라. 먹고 놀자.」 사또 취흥이 도도하여 風月 지어 읊으되, 「青天이 倒水中하니 魚遊白雲間이라, 이 글 어떠한고?」 비장들이 대답하되, 「예, 좋소, 문장귀요.」(13~14쪽)

이 대목 또한 <배비장전>에 드러난 관광적 요소를 잘 보여주는 데, 사또와 비장 일행이 해남에서 제주로 향하는 뱃길은 완전히 해상 관광 나온 분위기 그 자체이다. 이들은 망망대해를 바라보며 저마다의 회포를 풀며 뱃놀이하는 유람객처럼 술을 마시며 취흥을 돋우고, 시를 짓고 화답한다. 제주로 향하는 순간부터 船上에서 들뜬 관광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다.

사또 취중에 戲談한다. 「누구서 제주 배 타기 어렵다 하더니, 누워서 떡 먹기는 눈에 고물이나 떨어지고, 앉아서 똥 누기는 발허리나 시리지. 내 서울서 들으니 바다에 꼬리 큰 고기가 있다 하니 그 말이 옳으냐?」 사공이 여쭙으되, 「수령 개울 방축 못도 지킨 靈神이 있다 하니, 중지바다를 건너가오면서 취담을 마옵소서.」(14~15쪽)

하지만 선상 유람의 들뜬 분위기는 오래 가지 못하고 사또의 오만한 취담을 계기로 곧 큰 풍파가 일어나 사또와 비장, 하인, 사공이 모두 벌벌 떨며, 비장들은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한다. 황겁한 상황을 맞이하여 비장들은 배 안에서 정든 가족들과 잠시 동안의 분리가 아닌 영원한 분리가 될까 걱정하며 서로 울부짖는다.²³⁾ 여기에는 각 비장들의 제주 부임 동기와, 위기에 처한 그들의 자탄 내용이 꾸밈없이 드러나고 있다. 비장 신분으로 제주에 내려와 큰 재물을 착취하여 무언가 한몫 단단히 보겠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단지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비장 가족들의 소박한 꿈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 사또의 명으로 사공을 시켜 용왕에게 고사를 정성껏 지내니 물결이 잔잔해지고,²⁴⁾ 일행은 위기에서 벗어난다. 이 부분이 제주 부임 도중 목사와 여러 비장들이 선상에서 집단으로 경험한 渡海 통과례인 분리의례라 할 수 있다.

공무를 띠고 임지로 향하는 목사 일행은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언제나 순간의 분위기에 들뜨거나 교만하지 말고 대자연의 질서에 순응하고 겸손해야 함을 배웠다. 곧 배비장이 집단으로 겪은 분리의례는 근무지인 제주도로 배를 타고 유람 삼아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나 큰 고비를 넘긴 체험이다. 기존의 논자들은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필자는 이 분리의례 대목을 배비장의 의식 각성의 한

- 23) “북당의 학발양친 천리 도중 날 보내고 부모와 자식 되어 이제 올까 저 제 올까 흥안처자 우리 아내 임 생각 잠 못 이뤄/ “나이 사십이로되 자식 하나 없어.....선영에 향화 끊게 되니 이 아니 원통한가/ “형세가 가난하여 제주가 양태 소산이라 양태 동이나 얻어다가 가용에도 쓸 것이요 우리 마누라 속곳이 없어 한 벌 얻어 입힐까 하고 나왔더니/ “형세가 不貧하니 집에 그저 있었던들 좋을 것을 이름자나 같고 薦을 터서 출입을 바라더니”(16~17쪽)/ “북당에 학발양친 규중에 흥안처즈 천리도중 날 보내고 이제 올가 저제 올가 부귀환향할 줄 알고 날구일 기다릴제”(신 8쪽)
- 24) 고사를 지낸 사또는 다음과 같이 자탄한다. “生은 寄요 死는 歸也라 하니 夏禹氏 仰天嘆을 내게도 부쳤도다.”(19쪽) 여기에도 관광적 요소가 드러나는데, 사또는 우리의 삶을 이 세상에 잠시 들른, 여행 온(소풍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과정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항해가 즐겁다며 취중에 戲談을 한 결과 큰 풍파를 만나고, 용왕에게 고사를 지낸 후 풍랑이 가라앉았다는 점에서 여기에는 제의적 성격이 드러나기도 한다.²⁵⁾

2. 전이의례

이어 배비장이 겪는 전이의례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신관 사또 도입 후 여러 비장들이 기생들과 함께 즐기는 가운데, 동료 비장이 배비장에게 ‘物色之地 이곳 와서 愁心하시니 웬 일이오니까’(44쪽)하며 같이 놀자고 권한다. 이처럼 비장들의 제주 방문에는 관인으로서의 업무 외에 자연관광이나 미녀관광에도 그 동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배비장은 겉으로는 이들과 달랐다. 제주가 色鄕이라 염려하는 아내에게 ‘계집은커녕 아이들 비역이나 하게 되면 가막쇠 아들일세’(11쪽)라고 자신 있게 부인한 그였다. 이에 배비장은 아내와의 약속, 방자와 한 내기 때문에 같이 놀고 싶은 마음을 억제한 채²⁶⁾ 남들이 노는 것을 비양하며 九代貞男임을 자처한다. 여기서 우리는 속마음은 기생들과 함께 놀고 싶으나 명분에 사로잡혀 자신과 동료 비장들을 속이는 배비장의 위선적인 면을 엿볼 수 있다.

25) 영험을 기대하는 종교적 신앙의식인 ‘제의’와, 지위의 변화를 겨냥하는 사회적 통과의식인 ‘의례’의 개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제의와 의례가 배타적으로 분별되는 것은 아니며, 더불어 공존하기도 한다. <배비장전>의 분리의례에 드러난 제의적 성격도 이 의례를 온전하게 치르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의와 의례의 개념 구분에 관해서는 ‘임재해, 「민속문화에 갈무리된 제의의 정체성과 문화창조력」, 실천민속학회 제18회 전국학술대회(안동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년 2월 23일) 기조발표 논문, 13~14쪽(<http://limjh.andong.net/>의 연구저서와 논문 항목에서 출력)’ 참조.

26) “이 때 배비장은 鬱鬱心思 한 가지로 놀고 싶되, 이미 정한 내기 장부일언이 중천금이라, 내 어찌 변할소냐.”(43쪽)

이를 안 사또가 배비장의 이중성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 애랑과 공모를 한다. 원래 배비장과 친한 사이인 사또는 배비장이 향후 관리로서 생활해 나가려면 관인사회라는 內集團²⁷⁾ 분위기에 잘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의 성격상 문제점을 고쳐 주려고 한 것이다. 배비장의 위와 같은 태도는 당시의 관례에 비추어 교정을 요하는 경직성을 지니고 있었고, 이는 관아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길들이기 차원이라 할 수 있다.²⁸⁾ 이처럼 배비장은 사또의 호의에서 기획된 전이의례를 치르는 것이다.

사또 분부하시되, 「너희 중에 배비장을 欽하게 하여 웃게 하는 자 있으면 重賞을 줄 것이니, 그리할 기생이 있느냐?」……「네 능히 배비장을 翫절시킬 재주가 있으면 제주 기생 중에 인재가 있다 하리라.」 애랑이 여쭙오되, 「時方春風 좋은 때오니, 사또 명일 한라산 花遊를 하옵시면 배비장을 按此計 하오라다.」 사또 각방 비장과 의논하고 平明에 발령하여 한라산 화유갈 제, 사또 행장 차린 위의를 볼작시면 ……(47쪽)

배비장을 웃게 하고 또 그를 翫절시키기 위해 애랑은 사또에게 한라산으로 花遊를 갈 것을 제안한다. 한라산 꽃놀이는 일상생활이 아닌 여가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관광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애랑의 말을 들은 사또는 이튿날 바로 山遊舉行²⁹⁾을 결행한다. 이 한라산 화유는 업무 겸 관광차 제주에 온 관리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낸 자유 시간인 동시에, 배비장을 翫절시키고자 하는

27) 내집단(in-group)은 개인이 규범·가치·습관·태도 등에서 공통점을 느껴 同志意識을 가지고 집단에 대하여 애착·충성의 태도로 임하는 집단을 말한다. 집단 사이의 관계를 집단의 폐쇄성이라는 사실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집단개념으로, 인간의 심리적 집단태도의 유형이기도 하다(NAVER 백과사전 참조).

28) 권순궁, 앞의 책, 102~103쪽 참조.

29) 구할자본에서는 한라산 ‘花遊’를 ‘山遊舉行’(신 37쪽)으로 표기하고 있다.

속임의 무대로 작용하고 있다. 영문을 알지 못한 채 이들을 따라 나선 배비장은 한라산 자연 경관을 바라보면서 서서히 본격적인 전이의례를 겪는다. 이처럼 배비장이 치르는 분리의례와 전이의례에는 모두 관광적 요소가 내재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광적 특성은 서사의 흐름에 주도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영향이 통합의례에까지 미치고 있다.

사또 일행은 봄날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며 본격적인 꽃놀이 길에 접어든다. 소나무 아래에 가마를 놓고 한라산의 경계를 살펴 보며 ‘山景水景 瀛州春景 無限風景 종을씨고’(49쪽)라고 외친 뒤, 사또와 여러 비장들은 기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춘흥에 겨워 놀기 시작한다. 이때에도 배비장은 가장 淸高한 척하며 松亭巖上에 앉아 ‘如花美人은 看楚越이요 醉弄江山無限景을(꽃 같은 미인은 나와 아무 상관없고, 술에 취하여 무한히 좋은 강산 풍경을 희롱한다.)(49~50쪽)’이라고 하며 남들이 노는 것을 비양하는 글이나 짓는다.

여기까지는 배비장이 평소에 바라던 대로 제주의 자연 경관을 희롱하며 즐기는 모습이다. 하지만 배비장이 우연히 수포동 녹림 간에서 교태를 부리는 애랑의 모습을 발견하면서부터 이내 상황은 급변한다. 오직 강산 풍경만을 희롱할 뿐 꽃 같은 미인은 나와 상관없다고 하다가, 오히려 제주의 풍광은 간데없고 아리따운 미인의 자태만이 배비장의 눈앞에 아롱거릴 뿐이다. 곧 한라산으로 花遊간 배비장의 관심의 초점이 자연 경치에서 여인의 교태로 이동한 것이다. 불시에 자연 경관 감상에서 벗어나 여색에만 몰입하기 시작한다.

애랑의 목욕하는 모습을 본 배비장은 구대정남의 자궁심을 어느새 잊어버리고 도리어 음남이 된다. 이는 性에 대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난 솔직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그동안 은폐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비양한 배비장의 이중

성에 있다. 이러한 배비장의 본성이 이후 애랑과 방자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낱낱이 드러나면서 배비장은 혹독한 시련과 참회의 과정을 겪는다.

(배비장) 혼자 이른 말이, 「뉘 여인인지 모르거니와 사람 여럿 굳히
었겠다.」……무수히 자탄하되, 「차산의 좋은 경개 오늘날 모두 보고,
飛鳥投林하여 잘새는 날아들고 漁村落照는 석양이 거의로다」(53쪽)

배비장이 위와 같이 말하며 아쉬워할 때, 사또와 여러 비장들은 관아로 돌아갈 채비를 한다. 한라산의 자연 풍광은 모두 보아 부족함이 없지만, 綠林間의 여인을 그냥 두고 가자니 영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드디어 배비장은 배가 아프다며 궤병을 부려 방자와 함께 남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애랑의 유혹에 빠져든다. 규중 처녀 목욕하는 것을 몰래 보지 말라고 방자가 나무라자, 배비장이 잠시 궤를 내어 방자에게는 ‘방자야 저 景 좋다. 서으로 살펴보아라.……’(59쪽) 하는 식으로 한라산의 동·서·남·북·중앙 경관을 보게 한 뒤, 그 사이 배비장 자신은 목욕하는 애랑의 알몸을 바라본다.

방자 거짓 속는 체하고 가리키는 데로 살펴보니, 배비장은 그동안 여인 보느니라, 방자 그 거동을 보고, 「저 눈 일넬 눈이로고」 배비장이 깜짝 놀라 두 손으로 눈을 가리며, 「나 안 본다. 염려 마라」(60쪽)

이렇게 배비장은 양반의 체통도 잊고, 구대정남의 자부심도 내팽개친 채 방자의 눈을 피해 애랑만을 탐하고 있다. 실로 배비장의 탐색 대상이 자연 경관에서 女體로 바뀐 것이다. 여기서 제주 명산 한라산의 경치와, 이 산의 정기가 어린 애랑의 나체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저 눈 일넬 눈이로고’라고 한 방자의 예언은 맞아떨어져 이후 서사가 진행될수록 이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

르면서 배비장은 반성하고 참회하며 정신적 성숙을 경험한다.

此山過客이 花遊登臨하다가 行役에 노곤하고 기갈이 자심하니
혹 음식 있거든 飢寒을 면하게 救急을 시키압기 천만 바라옵나이다 하고
여쭙어라(61쪽)

天生陽하고 地生陰하니 陰陽配合은 人皆有之라 放蕩한 花柳客이 忽
登此山하여 探花蜂蝶의 마음을 知之又知之 하옵소서 하고 여쭙어라
(63~64쪽)

앞의 구절은 방자의 기침 소리에 목욕하던 애랑이 놀라 백포장 안으로 뛰어들어가자 배비장이 방자를 시켜 문안을 드릴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다. 꽃놀이하러 올라온 길손이 노독이 쌓여 도움을 청한다는 메시지를 ‘花遊登臨’, ‘行役’이란 말을 써서 표현하고 있다. 곧 배비장은 초면의 애랑에게 자신을 한라산에 꽃놀이하러 온 관광자로 소개하고 있다. 뒤의 구절은 방자의 중개로 배비장이 애랑에게 술과 음식을 받아먹은 후 답례로 전갈하는 내용이다. 방탕한 화류객이 꽃을 찾는 벌·나비의 마음과 같이 남녀 교합을 바란다는 내용이다. 화유등립의 관광자에서 화류객으로 자신의 신분을 격하시키고 있다. 사또의 의도대로 배비장이 점차 새로운 세계로 빠져들기 시작한 것이다.

배비장의 이러한 태도 변화를 관광의 통과의례론과 결부시켜 논해보기로 한다. 관광이란 일상생활로부터의 탈출인 동시에, 일상의 문턱을 벗어나 闕置性의 범위로 들어갔다가 다시 일상의 영역으로 돌아오는 행위라 할 수 있다.³⁰⁾ 이 같은 역치성의 세계에서는 관

30) 이처럼 우리는 관광을 일종의 의례(a kind of ritual)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의 평범한 모습과는 달리 차별성을 띤 특별한 경험으로서의 관광을 고려할 수 있다. Nelson H. H. Graburn, ‘Secular Ritual : A General Theory of Tourism’, Valene L. Smith & Maryann Brent(Co-Edited), “Hosts and Guests Revisited : Tourism Issues of the 21st Century”, New York, Cognizant Communication Corporation, 2001, pp.42~44.

광자는 좀 더 과격해지고 무절제한 행동, 일탈적인 성적 방종을 일삼기도 한다. 여기서 闕(limen)은 문지방 혹은 경계의 의미이며, 闕置的(liminal)은 이 문지방(경계)을 넘는 행위를 뜻한다. 또한 闕置性(liminoid)은 일상생활의 제도화된 영역(신분, 역할, 규범, 가치 등 기존 관례)에 배치되는 새로운 성격의 세계를 의미한다.³¹⁾ 육지와는 멀리 떨어진 제주에 부임한 배비장은 관광자의 입장이 되어 역치적 상황에 빠지고, 이전 생활과는 다른 전도감을 맛보며, 이에 평소와는 달리 애랑의 육체를 탐하는 행동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관광의 통과례론’의 관점으로도 우리는 배비장의 이중성이나 위선적인 면을 설명할 수 있다.

배비장의 위선이 드러나는 계기는 내적 집단의 공모에 의해 마련된다. 관인사회의 동류의식에서 자신만은 벗어나려 하고, 내집단에 속한 동료들의 관행적인 행동을 비양하는 배비장에 대한 계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과이다. 하지만 애초에 이 모든 것은 사또의 善意에서 비롯되었고, 악의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목사와 타비장들이 먼저 배비장을 집단 따돌림 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배비장 스스로 그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유별나게 처신하는 바람에 초래된 결과이다. 九代貞男임을 내세우며 자신의 본성을 속이고 동료들의 행동을 비꼬는 배비장을 동류사회로 편입시키기 위한 의도로 목사와 애랑 및 여러 비장들이 함께 사건을 꾸민 것이다.

애랑의 알몸을 한번 본 후, 배비장은 애랑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에 상사병이 골수에 깊이 들어 방자에게 매달린다. 결국 배비장이 백 냥이나 되는 돈을 방자에게 건네주며 자신의 편지를 애랑에게 전해 줄 것을 부탁한다. 실로 한양에서 제주로 업무 겸 관광차 부임한 관리가 제주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주

31) 이상의 ‘관광의 통과례론’ 혹은 ‘통과례로서의 관광’에 대한 논의는 ‘김사헌, 앞의 책, 103~105쪽’ 참조.

백성이 성적 본능을 자극하여 외지에서 내려 온 관리의 재물을 빼앗는 형국이 전개된다. 이는 앞서 정비장이 애랑에게 재물과 의복을 빼앗기고 알비장이 되는 꼴과 같은 상황이며, 관광학적 관점으로 보면 여색을 매개로 하여 관광지 현지인이 외래 관광자로부터 부를 창출하는 현상이다.

슬프다 이내 몸이 호탐자로 功名不成하여 영주도 수천 리에 남의 扁裨되어 와서 物色에 뜻이 없고 奇巖絶勝을 眼下에 회롱하더니, 昨日 登遊하여 한라산 화전놀이하고 녹림간 회로 중에 玉顔을 잠깐 보고 入眼昏迷 돌아와서, 欲忘而難忘이요, 不思而自思로다. …… 守節高行 부질없고 活人積德 으뜸이니 丈夫生死는 在娘子하고 娘子許身은 在一言이니, 一言으로 決丈夫生死하소서.(69~70쪽)

배비장이 방자를 통해 애랑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다. 처음에는 여색에 뜻이 없고 자연 풍광을 즐겨 감상하였는데, 어제 꽃놀이를 왔다가 애랑을 잠깐 본 뒤로는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으니, 장부 목숨을 살리는 셈치고 몸을 허락해 달라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양반 관리의 자긍심은 전혀 찾을 수 없고, 오직 미색을 탐하는 호색한의 욕망만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이 구절도 배비장이 처음에는 자연관광자원만을 즐겨 탐하였는데, 애랑을 본 뒤로는 그 탐색 대상이 자연 경관에서 女體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날 같은 好色男子 靑 중에 孤魂 되기로 누구를 원망하리」 …… (방 자 왈) 「저 靑을 불에 消火하리라. 짚 한 동 갖다 불 놓아라.」 이 때 靑 속에 든 배비장 그 말 듣고 탄식하되, 「인제는 바로 火葬한다. 이 일을 어찌할꼬?」(84쪽)

‘月落深夜’에 조심해서 찾아오라는 애랑의 회답을 받은 배비장이 방자와 함께 애랑을 찾아가 한바탕 회포를 풀 뒤, 방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 혹독한 망신을 당하며 후회하는 대목이다. 구대정남

을 자처하며 타 동료 비장들의 노는 행위를 비양하던 때와는 태도가 판이하다. 궤에 꼼짝없이 갇힌 자신을 스스로 호색남자라 인정하며, 이대로 죽더라도 누구를 원망하겠느냐고 자탄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러한 봉변과 망신을 당하면서 배비장의 의식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후 궤는 사또가 있는 東軒 마당으로 옮겨지고, 배비장은 ‘櫃中鬼神 네 들어라. 네 죄목 萬死無惜이라. 滄波中에 띄우리니, 速去千里 멀리 가거라.’(88쪽)라는 소리를 듣는다. 이어 배비장은 궤 안에서 다음과 같이 탄식한다.

못 보겠다. 못 보겠다. 천리 고향 백발 부모, 흥안 처자 못 보겠다.
..... 이름 없고 남모르게 耽色亡身 죽게 되니 내 아니 잡놈인가? (88~89쪽)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과 동료들을 속인 데 대한 혹독한 응보이다. 위기에 처해 처자를 그리워하는 자가 耽色을 한다는 것이 모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배비장은 분명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후회하면서, 그동안의 위선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깊이 깨닫는다. 이는 곧 목사가 주도한 전이의례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배비장이 耽羅國에 업무 겸 관광차 자연 경관을 耽하러 왔다가, 한라산의 경치 대신 여체를 耽한 결과 혹독한 망신을 당하고 각성한다는 것이 전이의례의 핵심이다. 이후 위기에 처한 배비장은 결국 다음과 같이 외친다.

「나 잡것 아니요. 사람이니 살려 주오.」
「사람이거든 거주 성명을 일러라.」
「제주의 배결덕쇠요.」
한 자가 나서며 이른 말이,
「제주라 하는 곳이 物色之地라, 분명 유부녀 通姦 갔다가 저 지경이 되었지?」

「예에 옳소. 뉘신지 모르거니와 참 아압니다.」
「물에 죽을 나의 목숨 살려 積德이니, 적덕으로 날 살리오.」
「눈은 생전 멀지라도 목숨이나 살려 주오.」(90~91쪽)

이렇게 귀신, 잡것으로 실추되었던 배비장이 다시 人性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양반의 권위는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배비장은 유부녀 통간하다가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해 순순히 자백하고 목숨이나 살려달라며 애걸한다. 이후 배비장은 알몸으로 궤 속에서 나와 동헌 마당에서 헤엄치는 모습으로 두 손을 허우적거리다가 뗏돌에 머리를 부딪치고는 사또와 삼공형, 기생들, 육방관속 등이 모두 자기를 향하여 웃는 것을 본다.

사또는 웃으면서 ‘자네 저것이 웬 일인가.’(92쪽)라고 한다. 사또 자신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기획해 놓고 배비장이 당하는 망신의 정도가 좀 심했다 싶었던지 이렇게 능청을 떠난다. 애초에 배비장 스스로 집단 따돌림을 자초하였고, 사또를 비롯한 동료 비장들이 동류의식을 발휘하여 이러한 배비장을 자신들의 내집단 속으로 귀속시키고자 도모한 결과이다. 하지만 실제 배비장 입장에서는 자신만이 동료들로부터 철저히 배제되고 집단 따돌림을 당한 격이 되어 버렸다.

본래 사또의 의도가 호의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배비장의 몰락은 처참했다. 이는 당시의 집단주의적 사고가 빚어낸 현상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배비장이 비록 풍자의 대상이 되어 놀림은 받았지만, 사또의 의도대로 배비장은 그만큼 성숙해지고 의식의 각성을 이룩한 것이다.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 의식이 변화한 것이다.

3. 통합의례

끝으로 배비장이 겪는 통합의례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동헌

앞마당에서 참혹한 망신을 당한 후, 한양으로 돌아가기 위해 제주 관아를 빠져나와 나루에 도착한 배비장은 해녀와 뱃사공을 만난다. 이들과의 문답 과정에서 배비장은 반말을 붙인 데 대한 봉변을 당하면서 백성들에게 항상 예를 갖추어 대하여야 함을 깨닫는다. 문답 대목을 일부 들어보자.

(빅) 여보게 이 사름 말 좀 무러보세

(빅) 이 스름 량반이 말을 무르면 엇지햐 딛답이 업노

(계집) 무슨 말이람나 량반량반 무슨 량반이야 형금이 조와야 량반이지 량반이면 남녀유별 예의엄치도 모르고 남의 녀인네 발가벗고 일하는 데 와서 말이 무슨 말이며 싸락이 밥먹고 병풍 뒤에서 낮잠 자다 왔습나 초면에 반발이 무슨 발말이여 춤 듯기실쿤 어셔가소(신 94~95쪽)

이처럼 배비장이 옛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처음 만난 백성에게 말을 낮추다가 망신을 당한다. 예의엄치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듣고는 부끄러운 마음에 혼자말로 자탄한다. 이후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어 어느 정도 공대를 하자 해녀의 태도는 곧 누그러진다.

(빅) 여보시오 너가 춤 실슈를 딛단히 햏엿소 이곳 풍속을 모르고

(계집) 실슈라 햏 것이 왜 잇소오릿가 그럿타 햏는 말슴이지오 그런데 당신은 어딴로 가시는 량반이심닛가(신 96쪽)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성들은 순박하고 솔직하다. 배비장이 잘못을 깨닫고 상대를 존중해 주자 해녀는 곧 선량하고 순수하게 답변한다. 배비장의 백성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 또한 깨달음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루에서의 배비장의 각성은 이 한 차례로 끝나지 않는다. 해녀가 海南 가는 배를 소개해 주자 배비장은 허겁지겁 그 배로 뛰어가 사공을 찾는다.

(빅) 어 이 배 스공이 누구여
(스) 어 스공은 왜 쳐져
(빅) 말 좀 무려보면
(스) 무슨 말
(빅) 그 빅가 어드로 가는 빅여
(스) 몰로 가는 빅여(신 98쪽)

이처럼 배비장의 반말에 비위가 틀린 사공의 응대가 고을 리가 없다. 사공의 곱지 못한 응대에 배비장은 한숨을 쉬며 ‘허 내가 그 쳐 춘몽을 못깨고 쯔 실슈를 헛엇구나’(신 99쪽)라고 하면서 어법을 고치고 태도를 바꿔 다시 묻는다.

(빅) 여보시오 로형이 이 빅 임즈시오
(스) 그렸습니다 내가 이 빅 임즈올시다
(빅) 드르닛가 로형 빅가 오날 썬나 회남으로 간다지오
(스) 예 오날 저녁 물에 썬남니다(신 99쪽)

위의 해녀와의 문답에서처럼 배비장이 다시 예의를 갖춰 묻자 사공도 곧 태도를 바꾸어 공손하게 응대한다. 해녀와의 대화에 이은 깨달음의 연속이다. 양반이라고 해서 백성을 낮추어 보지 말고 존중해야 함을 배비장은 인식한 것이다. 배비장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태도를 바꾸자, 해녀와 사공으로 대표되는 백성들은 다시 순박한 상태로 돌아와 응대를 잘해 준다. 선량한 관리가 되기 위한 통과의례의 한 과정으로, 배비장은 백성들을 정성껏 대하면 그들 또한 착하게 응대해 움을 직접 확인한 것이다. 실로 통합을 위한 의식의 각성이라 할 수 있다.

배비장은 사공에게 사정을 한 뒤, 여자 손님 1명이 專船한 해남 가는 배에 몰래 올라탄다. 하지만 나루를 떠난 배는 해남으로 가지 않고 도중에 배비장 몰래 回還하고, 배삯을 지불하지 못한 배비장은 사공에게 끌려 어느 집으로 들어간다. 사실 해남 가는 배

를 專船한 여인은 애랑이었고, 사공이 안내한 곳도 제주성 밖에 있는 애랑의 집이었다.³²⁾ 이 또한 애랑이 꾸민 일이었고, 결국 배비장은 애랑에게 또 속은 것이다. 목사가 애랑에게 배비장을 잡고 1삭만 머물러 있으라고 명하자, 애랑이 망신당하고 떠나가는 배비장을 붙잡기 위해 계책을 꾸민 결과이다.

이 익 애랑아 내가 그췌 스췌췌 올라간다 하직히고 지금껏 이곳에 잇서 이 모양으로 지내고 너도 관부에 밋인 몸이 일삭이 넘도록 현영치 아니호엿스니 스췌게서 만일 이러흔 줄 아옵시면 더구나 나를 스름으로 아시지 안켓구나(신 109쪽)

다시 애랑에게 沈惑하여 한 달을 넘긴 배비장이 위와 같이 말하며 수심으로 세월을 보낸다. 여기서도 자신의 처지를 파악한 배비장의 의식의 변화 상태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근심하고 있을 때 배비장은 뜻밖에 정의현감 임명이라는 칙명을 받는다. 제주에 도착하자마자 애랑에게 혹하여 봉변을 당하고, 창피함을 느껴 제주를 벗어나려다가 다시 애랑을 만나 제주성 밖에서 一朔餘를 보낸 뒤, 목사의 은덕으로 정의현감에 임명된 것이다. 이 기간 동안 몇 차례의 망신을 당하면서 배비장의 의식은 성숙하였고, 이후 정의현감을 거쳐 治民善政의 길로 들어선다. 배비장이 旌義縣監 칙지를 받든 후, 애랑과 목사가 배비장에게 이야기한 다음 구절에서 전후 상황을 헤아릴 수 있다. 이 대목은 실로 통합의례가 끝나는 순간이다.

(익) 이제는 전후 슈치 다 씨췌소이다 나으리 췌나실 췌에 목스도 괴셔 익랑시겨 나으리를 중도에 가셔 일삭만 류호라 호시더니 과연 오날 이 경스 잇게 호췌구려 속담에 물에 잡어느면 건져낼 힘도 잇다

32) (빅) 그는 그러타 호나 네 집이 본딤 히남이나

(익) 이곳이 히남이 아니오라 제주성 밋(濟州城外)이롤시다(신 107쪽)

흐더니 스도게서 나으리를 여지업시 속이시고 다시 이와갓치 眷念호
오시니 첫지는 나으리의 宦福이오 돌지는 스도의 恩德이오(신 110~111
쪽)

(목) 그썸 잠시 속은 일을 부딪 致意치 말고 익랑 다리고 新郡에 도
임호야 治民善政호야 부딪 성은을 보답호소(신 111쪽)

여기서 목사 김경의 의도 파악이 중요하다. 배비장의 경직된 의
식을 각성시키고, 백성을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를 체득하게 하여
장차 治民善政하는 훌륭한 관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전 과정을
목사가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김경은 처음부터 배비장에게 예
방소임을 맡길 만큼 배비장과 각별한 사이였고, 후반부에서 배비
장이 정의현감에 임명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제
주 3읍 수령으로는 제주목사·정의현감·대정현감을 들 수 있는
데, 이들의 品階와 역할로 보아 제주목사는 정의현감이나 대정현
감에 비해 우위에 있는 존재가 분명하다.³³⁾

사실 정의현감은 제주의 동남부 지역인 정의현을 다스리는 지방
관이다. 배비장은 원래 ‘친한 양반’이었던 제주 목사의 은덕으로
정의현감에 임명되었기에, 제주에 비장 신분으로 부임하면서부터
정의현감직을 수행할 때까지 목사의 보호 아래 있었던 셈이다. 비

33) 조선 태종 이후 제주의 행정구역은 濟州牧과 旌義縣, 大靜縣의 삼읍체제
로 개편되었다. 이는 강력한 지방통치로 제주도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
려는 중앙정부의 의도였다. 이러한 삼읍체제는 한말에 약간의 변동은 있
었으나, 1914년 하나로 통합될 때까지 500여 년 간이나 유지되었다. 삼읍
의 행정구역은 일반적으로 제주목은 동쪽 중달에서 서쪽 두모에 이르는
한라산 북쪽 일대였다. 정의현은 시흥에서 법환에 이르는 제주의 동남부
일대이며, 대정현은 강정에서 고산에 이르는 제주의 서남부 일대이다. 삼
읍에는 고을 원님이라 부르는 수령으로 제주목사(정3품), 정의현감(중6
품), 대정현감(중6품)이 중앙에서 파견되었다. 제주목사는 형옥, 소송의 처
리, 부세의 징수, 軍馬의 고찰, 왜구의 방비 등 제주도 지방에 대한 모든
행정을 집행하고 사후에 전라도 관찰사에게 1년에 두 차례 보고를 행하
여야 했다. 이상의 내용은 ‘국립제주박물관 편저, 『濟州의 歷史와 文化』,
통천문화사, 2001, 131쪽’ 참조.

장으로 발탁한 후 몇 차례의 통과의를 거쳐, 경직된 성격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백성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자 바로 정의현감으로 천거할 만큼 목사는 배비장의 됃됨이에 대해 충분히 파악을 한 상태였다. 물론 여기에는 의도야 어떻든 배비장을 혹독히 속여 망신을 준 데 대한 배려와 보상의 뜻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비비장이 아무 일 업시 벼슬을 ㅎ엿스면 보는 스릅들이라도 그다지 칭송이 업섯스런마는 망신을 극도에 달토록 ㅎ고 쏘 일조에 귀히된 식답으로 이와 갓치 야단인 모양일너라 비현감 旌義에 도입 ㅎ 후 治民善政 ㅎ야 거리거리 송덕비를 세우고 시화년풍 ㅎ며 산무도적 ㅎ고 夜不閉門 ㅎ니 褒貶에 上等이오 政治에 居甲이라 츠츠 승등 ㅎ야 內職으로 동부승지 리조참판 ㅎ지 부귀를 누리고 인량이 쏘 아달 형제를 나아 본부인 쇼싱 숨죽일너와 년치짜러 등과 ㅎ야 일홈을 죽빅에 드리 고 공을 청스에 표 ㅎ며 목스 김경의 집과 디츠 通家之義를 밋져 일세에 명예가 츠츠 ㅎ더라(신 112쪽)

위의 대목은 결말부의 내용이다. 배비장이 망신을 호되게 당하고 하루아침에 귀하게 된 까닭에 칭송이 자자하며 야단이라고 했다. 이는 배비장이 업무 겸 관광차 제주를 방문하면서부터 분리의례·전이의례·통합의례를 겪으며 의식이 변화하고 깨달음을 얻은 결과이다. 마지막 구절에 드러난 ‘通家之義(誼)’는 절친한 친구간에 친척처럼 내외를 트고 지내는 情誼를 뜻한다. 작품 서두의 ‘다형이 친흔 량반 제주목스 제슈되야 도입 길 썩나면서 비장으로 가즈 ㅎ나’(신 2쪽)라는 구절과 결말부의 이 구절을 연계시켜 보면 김경 목사와 배비장 간의 각별한 관계를 다시 한 번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배비장은 통합의례를 치르면서 비장직을 그만둔 지 一朔餘만에 정의현감에 임명되어 관인사회에 재통합되었고, 제주로 들어올 때 가족과 헤어졌지만 지금은 한양의 가족 대신 우선 대안 가족인 애랑과 결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상에서 배비장이 비장 직책을 띠고 제주로 향하는 순간부터

정의현감에 임명되기 전까지의 전 과정을 배비장의 인생에 큰 변화의 계기가 된 통과의례로 보고 작품을 살펴보았다. 한 달 남짓한 기간에 배비장은 관인 생활의 전환점이 되는 분리·전이·통합 의례를 치른 것이다. 문면에 드러난 내용만으로 볼 때, 배비장은 조선 후기 관인사회에서 이루어진 收奪과 蓄財를 논할 위인이 못 된다. 배비장이 貞男을 자처하며 타 동료 비장들의 노는 행위를 비양한 점에서는 정직하지 못했지만, 그는 수탈·축재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³⁴⁾

IV. 맺음말

이상에서 <배비장전>에 드러난 관광적 요소와 통과의례로 본 <배비장전>의 의미에 관해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학제간 연구 혹은 間學問的 접근방식으로 <배비장전>을 고찰하였다. <배비장전>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에다 관광학의 특징이론을 빌려 작품 해석을 심화했다. 이는 국문학과 관광학의 융합 연구이며, 국문학을 母學問으로 한 국문학의 경계를 넘어서는 연구이기도 하다.

<배비장전>은 작품의 서두부터 관광적 특성이 드러난다. 이러한 관광적 요소는 배비장의 제주 방문의 동기로 작용하였고, 서사가 진행됨에 따라 배비장이 애랑의 아리따운 자태를 탐하고자 하는 욕구의 시발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기존 연구자들의 상당수가 배비장을 풍자의 대상으로 거론하였지만, 본고에서는 배비장을 비장 업무와 제주 관광을 통한 통과

34) 박진태는 배비장을 서울에서 제주도에 파견된 수탈 계층의 일원으로 파악하고 작품을 논하고 있는데, 이 점은 재고를 요한다(박진태, 「배비장전의 이중성」, 『고전소설의 이해』(윤광봉·유영대 역음), 문학과비평사, 1993, 363~366쪽 참조).

례의 주체로 보고 작품의 의미를 새롭게 파악하였다. 곧 배비장이 제주로 출발하는 순간부터 정의현감에 임명되기 전까지의 전 과정을 배비장의 의식 각성의 계기가 된 통과례로 보았다.

통과례는 분리의례·전이의례·통합례로 가를 수 있는데, 배비장은 제주에 오면서부터 이 세 차례의 의례를 모두 겪는다. 먼저 배비장은 제주 부임 도중 목사와 여러 비장들과 함께 船上에서 집단으로 풍랑을 경험하는 분리의례를 치른다. 여기서 목사 일행은 대자연의 질서에 순응하고 겸손해야 함을 배운다. 이어 九代 貞男임을 자처하던 배비장이 耽色으로 인한 흑독한 봉변을 당하는 전이의례를 겪는다. 이를 통해 배비장은 위선적이고 경직된 사고를 교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작품의 후반부에서 배비장은 해녀·사공과 대면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의 망신을 당한 뒤, 목사의 도움으로 정의현감에 임명되고 한양의 가족 대신 우선 代案 가족인 애랑과 결합하는 통합례를 치른다. 이러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배비장은 직·간접적으로 의식의 각성과 정신적 성숙을 경험한다.

관광이란 일상생활로부터의 탈출인 동시에, 일상의 문턱을 벗어나 闕置性의 범위로 들어갔다가 다시 일상의 영역으로 돌아오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치성의 세계에서는 관광자는 좀더 과격해지고 무절제한 행동, 일탈적인 성적 방종을 일삼기도 한다. 육지와 멀리 떨어진 제주에 부임한 배비장은 관광자의 입장이 되어 역치적 상황에 빠지고, 이전 생활과는 다른 전도감을 맛보며, 이에 평소와는 달리 애랑의 육체를 탐하는 행동을 보인 것이다.

관인 생활의 전환점이 되는 배비장의 통과례에는 목사 김경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김경은 배비장을 비장으로 발탁한 후 그의 경직성을 교정해 준 교정자인 동시에 결말부에서 배비장이 정의현감에 임명되도록 도와준 보호자·후원자였다.

문면에 드러난 내용만으로 볼 때, 배비장은 조선 후기 관인사회

에서 이루어진 收奪과 蓄財를 논할 위인이 못된다. 단지 애초에 관인 생활을 원만히 하기에는 사고가 경직되었으며, 인간의 본성을 부정하고, 동료들의 행위를 마땅하지 않게 여기고, 백성에게 양반의 권위를 내세운 위선적인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격을 지녔던 배비장도 통과의례를 거치면서 의식의 변화를 경험하며 治民善政하는 관리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주제어(Key words): 배비장전(Baebijangjeon), 배비장(Baebijang),
관광적 요소(elements of tourism),
간학문적 접근방식(inter-disciplinary approach),
통과의례(the rites of passage), 역치적(liminal),
역치성(liminoid)

참고문헌

- <배비장전-옹고집전>(신구문고 4), 정병옥 교주, 신구문화사, 1974, 1~144쪽.
- <新訂繡像 裴裨將傳(신정슈상 비비장전)>, 新舊書林, 1916, 1~112쪽.
- 권두환, 「<배비장전> 연구」, 『한국학보』 제17집, 일지사, 1979, 107~125쪽.
- 권순궁, 「지방대학 ‘국어국문학과’의 개편과 전망」, 『고전문학연구』 제25집, 한국고전문학회, 2004, 37~52쪽.
- 권순궁, 『고전소설의 풍자와 미학』, 박이정, 2005, 1~293쪽.
- 김사현, 『국제관광론 -국제관광 현상의 사회문화론적 해석-』, 백산출판사, 2006, 1~371쪽.
- 박진태, 「배비장전의 이중성」, 『고전소설의 이해』(윤광봉·유영대 엮음), 문학과비평사, 1993, 361~387쪽.

- 신우성, 『관광자원의 이해』, 기문사, 2004, 1~345쪽.
- 오순환·김대우, 『한국의 여가문화』, 일신사, 2004, 1~298쪽.
- 이은봉, 「<배비장전> 연구사」, 『고소설 연구사』(일위 우쾌제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간행위원회, 2002, 827~847쪽.
-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84, 1~573쪽.
- 이종묵, 「지방화 시대 한문학 연구의 시각과 방향」, 『한민족어문학』, 제45집, 2004, 39~56쪽.
- 임재해, 「민속문화에 갈무리된 제의의 정체성과 문화창조력」, 실천민속학회 제18회 전국학술대회(안동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년 2월 23일) 기조발표 논문, 1~25쪽.
- 최한선, 「광주·전남지역 국어국문학과 및 문예창작과 현황과 실상」, 『고전문학연구』 제25집, 한국고전문학회, 2004, 85~87쪽.
- 조동일, 『민중영웅 이야기』, 문예출판사, 1992, 1~328쪽.
- 국립제주박물관 편저, 『濟州의 歷史와 文化』, 통천문화사, 2001, 1~259쪽.
- A. 반겐넵 저, 전경수 역,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1985, 1~280쪽.
- Mordecai Marcus, 「<이니시에이션> 소설이란 무엇인가?」, 『현대소설의 이론』(김병욱 편, 최상규 역), 대방출판사, 1984, 460~474쪽.
- Nelson H. H. Graburn, 'Secular Ritual : A General Theory of Tourism', Valene L. Smith & Maryann Brent(Co-Edited), "Hosts and Guests Revisited : Tourism Issues of the 21st Century", New York, Cognizant Communication Corporation, 2001, pp.1~ 462.

A New Research of <Baebijangjeon(裋裊將傳)>

Yook, Jae-Yong

This study is aimed at taking *Baebijangjeon* into consideration through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Many elements of tourism are revealed in *Baebijangjeon*. Therefore, a deeper analysis of the work was made by applying a tourism theory to the past Korean literary researches on *Baebijangjeon*.

All courses from the moment Baebijang leaves for Jeju(濟州) Island until the appointment as the chief of Jeongui(旌義) township were depicted as the rites of passage which served as a big step to Baebijang's sobering mentality. The rites of passage consist of rites of separation, transition rites, and rites of incorporation. Baebijang has experienced all three rites of passage while in Jeju Island.

First, Baebijang had a rite of separation, an experience of big waves with a lord and other officers on board on the way to Jeju Island for service. After that, Baebijang, claiming himself as a faithful husband, had a transition rite of experiencing severe humiliation because of his love affair.

Baebijang, stationed in Jeju Island, felt a sense of inversion in a liminal situation like a tourist, unusually showing his behavior of lusting for the beauty of Aerang(愛娘). In this liminoid circumstance, tourists seem to commit more aggressive, loose and dissolute wrongdoings by breaking away from the routine of daily life.

Finally, in the latter part of the story, Baebijang was also humiliated at the process of questions and answers with a female diver and a boatman, but he had a rites of incorporation of being appointed as the chief of Jeongui township with help of a lord. Baebijang goes through sobering mentality and mental maturization through these stages, in effect, becoming a magnificent official who administers the subjects with an exemplary and beneficent government.

육재용
김포대학 교수
주소: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산 14-1
전화번호: 031-999-4180
전자우편: jyyook@kimpo.ac.kr

이 논문은	2007년 4월 30일	투고하여
	2007년 6월 2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7년 6월 30일	간행함